

건설 Essay

단국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김 창 영

1985년 10월 20일, 기업 '(주)창영건설'이 신규상장 되었습니다.

이 기업은 상장 초기부터, 약 19년간 꾸준한 건설에 대한 투자를 하면서 그 가치를 키워나갔습니다. 18년재인 2002년부터는 건설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키우기 위해 설계와 시공 등에 관심을 가지고 대한토목학회지, 한국도시설계학회지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잡지를 꾸준히 구독하면서 노력하는 열정을 보이며 상승세를 탑니다.

그러나 19년째부터 20년이 되는 해에는 저조한 수능성적이라는 변수로 인해서 잠시 침체기를 겪으면서 주가가 최저치로 떨어지는 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번 마음먹고 시작한 일은 끝을 보고야 마는 승부욕과 강렬한 눈빛으로 노력한 결과, 서서히 주가를 회복하여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단국대 토목환경공학과에 합격하였고 위축된 투자심리로 인해 떨어지던 주가도 반등하였습니다. 그 후 학과 공부에 충실하며 좋은 학점과 토목기사 자격증으로 회복세를 보여 상장된지 25년째인 현재, 안정적으로 상승종목에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주)창영건설'이 실제의 자산가치에 비해 저평가 되어있어 안타깝습니다.

이번 제5기 차세대 건설리더 아카데미 활동을 마치면서 2009년에 그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게 되어 다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미래 대한민국의 토목, 건축분야에서 큰 활동이 기대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5기 차세대 건설리더 아카데미 반장 '(주)창영건설'의 가파른 상승요인을 다음과 같이 두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 이번 교육을 통해 반장이라는 역할을 통해 리더십과 사람을 얻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나서지 않을 때 먼저 앞장서 반장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주1회 반 전체 점

심회식, 현장전학 활동, 짝꿍 정하기 이벤트, 기수 최초 단채리서츠 제작 등의 활동을 통해서 리더십의 기업으로, 리더십을 통한 모든 사람을 얻는 인맥제조기로 활동하였습니다. 더욱이 다양한 지역과 학교에서 온 각기 다른 색이지만, 같은 관심사와 비슷한 목표라는 하나의 연결고리로 묶여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소중한 인적네트워크를 얻기도 했습니다.

둘째, 잃어버렸던 열정을 재발견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상승주가를 달리다 꿈과 방향성에 대한 고민으로 인해 잠시 침체에 빠져있던 '(주)창영건설'은 이번 교육을 통해 CM, PF, VE 등 기존의 엔지니어의 역할에서 벗어나 멀티엔지니어로서의 역할을 배우게 되었고, 인천 송도 주상복합 건설현장, 천안발전소 현장전학을 보고, OJT 활동과 실제 우리나라 건설의 현실과 학교공부와 실무와의 비교 등을 통해 '(주)창영건설'의 미래 건설리더로서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교육은 마음으로 느끼기만 하고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는 열정은 단지 뜨거운 열 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가까운 미래를 책임질 한국건설업계의 '아웃라이어(보통 사람의 범주를 넘어서 성공을 거둔, 성공의 기회를 발견해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든 사람)' '(주)창영건설'은 이번 차세대 건설리더 아카데미를 통해 가능성을 발견하고 열정과 희망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차세대 건설리더 아카데미'라는 프로그램은 이런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프로그램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기회를 아주 운 좋게 잡은 사람들 중 하나입니다.

좀 더 열정적으로 '건설'을 바라보면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큰 세상을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시야는 결국 '(주)창영건설'의 미래를 좀 더 멋지게 해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열정과 꿈을 가지고 강렬한 눈빛으로 바라본다면 가능성은 이루어질 것이라. 그래서 '(주)창영건설'은 이번 차세대 건설리더 아카데미'를 발판으로 다시 뿔 것입니다.

창영건설에 의해 바뀔 세상을 위해서.....